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2)

1 기도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일의 의미를 되새겨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 찬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150쪽)

3 말씀 읽기 창세기 1: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4 말씀 이해하기

하나님께서 6일의 창조 끝에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 하신 것은 '안식' 곧 쉬는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창조되고 처음 맞은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담은 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세상을 살펴 보고 그분의 능력을 찬양하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아름다운 동산에서 그저 먹고 놀라고 창조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전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명령은 사람이 세계 속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 분이 세계를 보살피고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자연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도가 세계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햇빛과 비를 주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도도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되어 세계와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자연과 세상을 억압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의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출현을 고대한다고 말합니다(롬8:19). 왜냐하면 의와 거룩함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자연과 피조물들을 그분의 손길로 돌보아 주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5 문답으로 말씀 이해하기

- 6일 째 되는 날 창조된 사람이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는 것이었습니다.
-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 성도는 하나님과 같이 의 손길로서 세상과 자연을 대해야 합니다.
- 피조물이 하나님의 자녀의 출현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6 삶의 나눔

말씀을 묵상하고 느낀 점을 가족과 함께 나누십시오.

7 함께하는 기도

함께 나누는 말씀을 실천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8 주기도문